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면 홍보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1.23 13:40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조금시장)' 및 매년 많은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홍보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한 자녀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자녀를 위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농업 은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에 눈길을 끌며 큰 관심을 받았다.

진도지사는 이번 홍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많은 고령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가입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0.0백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내용이 개정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는‘일시지급형’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동안 매월 지급하는 ‘분할지급형’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가입과 동시에 연령에 따라 분할지급금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진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홍보 활동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주로 상담을 받았던 주민의 연령층이 고령이 아닌 비교적 젊은층이라고 했다. 시장을 방문한 한 청년은“부모님이 고령의 나이에 농사를 짓고 계셔서 항상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기회에 부모님을 설득해 농업을 은퇴하고 직불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기고자 한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녀들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노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개정된 지침에 대하여 은퇴농업인들이 더 큰 도움을 받고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